

40년만의 최악 물난리 원인 규명, 환경부 셀프조사 안된다

영산강홍수통제소도 수자원공사·기상청도 환경부 산하 기관 지역민·정치권 “자체조사는 면피용…법정부 조사단 꾸려야”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지역을 축 대밭으로 만든 초유의 물난리 원인 규명 작업이 환경부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홍수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영산강홍수통제소,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역대급 오보를 낸 기상청을 각각 소속기관, 산하 공기업, 외청으로 거느리고도 이번 홍수를 되레 키운 장본인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환경부의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독립적인 댐관리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이나, 조사위 출범 전부터 환경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환경부의 셀프 조사는 면피용, 총리 산하로 범정부 특별기구(TF)를 꾸려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 조사를 위해 이날부터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경부는 최근 집중 호우 당시 댐 운영 관리 전반이 적절했는지 살피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으며, 위원회는 8월 말부터 활동에 들어가 10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겠다고, 위원 10-15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조사위 임무에 대해 “이번 홍수 시 댐 방류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라며 “(조사위가) 댐 방류량이라는 가 방류 시점, 주민 통보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댐 방류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가려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지역민 의견도 충분히 들었으며,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댐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이번 홍수 피해가 인재라는 지적이 있다. 장관은 동의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댐 관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해 제가 답을 주기보다는 조사해서 밝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환경부 차원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조 장관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23일까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부처별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환경부의 이 같은 계획이 나오기 이전부터 수해지역과 정치권에서는 ‘사고를 친 환경부가 조사를 주도하는 셀프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원인 규명 등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뒤부터 ‘환경부 주도의 댐 관리 실패 원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노홍래 의원(마포갑)은 이날 오전 환경부 계획 발표에 앞서 페이스북에 ‘환경부 자체 조사는 면피용…총리



구례 주민들이 지난 16일 수해지역 순회 방문차 구례읍 구례 5일장 상인회 사무실을 찾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구례 등 전남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은 하천·제방·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된다. /연합뉴스

산하 범정부 특별기구(TF) 구성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띄우고 환경부 계획을 정면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기록적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댐관리와 방류 등 치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직접 손해를 입은 섬진강 등 강 하류의 주민들은 미리 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

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노 의원은 “이에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면피용 조사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례 찾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섬진강홍수통제소 최우선 복원하겠다”

“특별재난지역 추가도 검토”

정부가 섬진강홍수통제소를 복원기로 했다.

지난 2005년까지 운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의 부재 및 방재 기능 미비가 구례·곡성 등 섬진강유역 물난리를 키웠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8월 14일자 1면)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구례군청에서 김순호 군수,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섬진강홍수통제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전남도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광양·담양·순천·함평),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댐 방류 결정 과정에 지자체 참여 등을 건의를 받고 “통폐합된 섬진강홍수통제소 설치를 최우선 검토하고 나머지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섬진강 하류에 자리잡고 지난 1990년부터 운영되던 섬진강홍수통제소는 지난 2005년 광주·농성동 소재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통폐합했다.

당시 홍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물관리 전문인력 충원에 나섰으나 정부가 증원을 승인하는 대신, 조직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흡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하천법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전국 4개 홍수통제소에 댐 방류 결정, 주요 하천 홍수 특보 발령 등 홍수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인력 구조가 취약해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자에 의해 홍수 통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섬진강 물난리와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녹조 등 수질관리, 용수 관리와 함께 홍수 통제 등 방재가 물관리의 핵심인데도 방재에 무관심했던 게 화를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

“수자원공사 물장사 욕심에 방류 조절 실패…부실한 치수 시스템 제기능 못해”

섬진강 물난리, 인재·관제 주장 나오는 이유

구례·곡성 등 섬진강댐 하류 물난리를 두고 인재(人災), 나아가 관제(官災)라는 원성이 수해지역에서 쏟아지는 이유는 여럿이다. 구례 등 수해지역민들은 우선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지목한다. 지난 7-8일 집중 호우가 사전에 예고된 데다, 비구름이 남부지방을 강타하기 이전에 수도권, 중부권에 먼저 물 폭탄이 가까운 호우를 쏟아냈다는 점에서 당국이 섬진강댐 수위를 사전에 낮춰야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부터 8일 오전 6

시까지 초당 50-600t의 소량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다. 폭우가 시작된 지난 7일 낮 12시까지 75%라는 저수율을 유지했다. 총저수량 4억6000만 가운데 3억5000만 t의 물을 쌓아두고 있었다. 폭우가 그치지 않자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초당 1000t으로 방류량을 늘리더니, 1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는 초당 1800t 이상의 물을 쏟아냈다. 당시 오전 6시 방류량이 600t 남짓이었다는 점에서 불과 3시간 사이 방류량을 3배로 끌어올렸다. 섬진강 하류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욕심에 홍수기에도 물을 저장하는 데 혈안이 됐다”는 원성이 나온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 능력도 지적한다. 초당 1800t이라는 초유의 방류 7분 전에서야 주민과 구례군청 등에 통보하는 등 느닷없이 대량 방류로 대응 시간을 주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게 섬진강 하류 지자체와 주민들 입장이다.

지난 2005년 섬진강홍수통제소가 광주·농성동에 소재한 영산강홍수통제소에 통폐합된 사례를 비롯한 정부의 홍수 통제 기능 등 방재 무관심이 부각되면서 관제라는 지적도 부각되고 있다. 40년 만의 물난리를 몰고 온, 6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 7-8일 광주·전남·전북권의 홍수 통제를 맡는 환경부 소속 영산강홍수통제소에는 홍수통제 업무 직원만 단 4명이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 4명의 예보통제과 직원이 통제소장을 보좌해 광주·전남·전북권 주요 하천 홍수 특보 발령을 내리고, 영산강·섬진강·탐진강·동진강에 소재한 9개 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취약한 인적구조에서 홍수 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영산강홍수통제소는 주요 하천 홍수 특보 발령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